

## 영·호남상생발전포럼창립총회 출범 “영·호남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사)영호남상생발전포럼’ 창립총회가 20일 오후 3시 대구 북구 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호남이 한자리에 모여 만세삼창으로 상생발전과 대한민국 동·서화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 20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서 개최 우종철 이사장 “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 필요”

미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이 살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명제가 영호남 민간차원에서 제시됐다. 역으로 말하면 정치권과 민심이 니편대편으로 양분화하면서 영·호남상생발전 없이는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다. 특히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영호남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민·관·정이 함께해야 하며 더는 늦출수도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데 한목소리로 뭉쳤다.

이같은 절규는 20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영호남상생발전포럼창립총회 자리에서 “영남 만세! 호남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삼창과 함께 영·호남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화합을 천명하면서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우종철 영호남상생발전포럼(창립) 이사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상현·이인선 국회

의원,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현일 경산시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재우·이재숙·정일균 대구시 의원과 포럼 기획·홍보분과, 정책연구분과, 상생경제교류분과, 문화·체육·예술분과 등 영·호남 달빛동맹으로 동서화합을 이끌어내려는 회원 200여명이 동참했으며, 또 참석하지 못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승남·윤영덕 국회의원, 박홍률 목포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등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특히 강 광주시장은 “강력한 경제 동맹인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제안한 바 있으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심각한 국가 질병이었다. 이번 포럼을 통한 정책이 영호남 동반 성장의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호남 정관계 인사를 대

표해 (사)영호남상생발전포럼(창립)에 함께 동참을 선언했다.

우종철 포럼 이사장은 이철우 경북지사, 윤상현·이인선 국회의원,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며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민통합’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영호남이 상생발전 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영호남이 화합하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가까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영호남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을 가지고 호시우보(虎視牛步,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의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포럼 창립 포부를 나타냈다.

이철우 지사는 “해묵은 지역감정은 서로를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 민·관·정이 함께 나아가자”며 “대구·경북에서 이번 포럼이 진행된 만큼 다음에는 광주·전라에서도 포럼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윤상현 국회의원도 “통일신라가

이룩된 후 백제와 신라의 화합을 위해 지리산 중턱에 ‘화염사’를 세웠다. 이것은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며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선 영호남의 화합 상생 발전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선한 시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것이며 특히 정치인들에게 영호남 발전을 요구하는 현장도 함께 만들면 좋겠다”며 영호남 문화적 차이를 비교 해석했다.

이날 ‘영호남상생발전포럼 창립총회 선언문’ 내용은 △영호남 동서화합·상생, 미래세대 물려주기 △동서화합과 상생발전 화두 강조·실천 △철저한 정치·당과성 배제 △대한민국 발전 위한 균형·건설적 분과별 활동 △동서지역 민간교류 확대 △동서지역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위한 정책 제안·공론화 △진정성 있는 교류로 자긍심·애향심 갖고 대한민국 미래 발전 천명 등이다.

사단법인 영호남상생발전포럼(E&W Co-Prosperity Forum)은 ‘영호남 상생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날 창립 총회를 열고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정치·당파·지역·종교 등을 초월한 순수 민간 참여로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동서화합을 넘어 대한민국 통일과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호시우보(虎視牛步)’=국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뜻>

장지수 기자

### 영천시 人事 13일자 (수시)

- ◇ 승진 임용 ▲이재열 교통행정과장 ▲허희정 체육시설사업소장 ▲박해용 산림과장 ▲이준연 지역보건과장 ▲박상우 의회사무국 과장
- ◇ 부서장 전보 2명 ▲윤동훈 인구교육과장, ▲조분태 종합민원
- ◇ 과장 파견 복귀 1명 ▲오영호 복안면장
- ◇ 7급이하 전보 ▲송지영 인구교육과 시설(건축) 8급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 경 일남 참전 호국의식 함양 및 기념 준공식 축



▶일시: 2022년 9월 23일 14시

▶장소: 영천충혼탑산(영천시 교동 11-12)

지 부 장	김준후	위 원	이영준
지 회 장	박석만	“	지규명
사무국장	정연팔	“	최상빈
고 문	김기용	“	김백순
“	이인호	“	온중수
대 의 원	황종태	“	박병환
위 원	류의봉	“	강경순
“	이규용	“	서대운
			박주상

T.054)335-4205 / F.054)338-4205

사무국장 010-9797-8136

# <제3보> 치일1리 이장 선출 청통면이 직접 주관... 관 개입 문제 없나?

### 마을 비리 전모 수면위로 부상...마을 어르신, "이러면 안되는데" 걱정 청통면이 주민총회 직접 주관(공고) 후 총회 없이 일방적 투표만 강행 정족수 없는 관 주도 주민투표 참여율 36.6% 대표성 논란 일 듯

청통면 치일1리 이장 선거를 두고 불거진 '행복마을' 보조금 비리의혹(본지 344호, 345호 연속 보도)이 가시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청통면이 직접 마을 총회와 이장 투표를 주관해 적법성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마을 비리까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청통면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치일1리는 직전 이장의 임기가 지난해 연말 종료되면서 두 차례(K씨, H씨) 이장을 선출했으나 두 이장 당선자 모두 청통면으로부터 임

서 제1 당선자 K씨는 이달 17일 대구지방법원에 청통면을 상대로 자신의 이장임명 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한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청통면은 지난 19일 직접 주민총회를 소집해 세번째 이장(H씨)을 선출해 앞서 절차 위반으로 임명을 반려했던 H씨를 지난 22일 새 이장으로 임명(임명장은 25일 전달)했다. 만약 K씨의 소송에서 청통면이 질 경우 관 주도적 이장선출과 두 명의 이장이 탄생할 수 있어 큰 후폭풍에



만 총회 개최 현수막과 공고문을 홍보해 놓고 총회가 아닌 주민 투표를 붙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불거진다. 거기가 주민 참석율 36.6%의 대표성과 투표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청통면은 "마을에 충분한 기회를 주었으나 해결이 안되어 투표만 바로 실시한 것으로 적법성 논란은 있을 수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치일1리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주민 대표인 이장과 선관위원장(노인회장)이 인정한 K씨에 대한 이장 임명을 거부한 것은 청통면이 스스로 현직 이장과 선관위원장을 부정한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주민들 일에 관이 마음대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 이장과 반장이 뭐 필요하며, 이는 다른 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며 우려하고 나섰다. 또 "청통면의 이번 우리마을 이장선거 주민총회 개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관 개입이다"면서도 직접 나서기는 꺼려했다.

여기에 K씨는 변호인측의 의견을 들어 "청통면이 주민을 속인 것이다. 현수막과 공고(영천시 청통면 공고 제2022-6호)에는 주민총회를 한다면서 실제로는 총회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만 붙인 것은 우리 주민을 속인 것이고, 또 투표 방식도 정족수 표시도 없이 참석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찬반을 묻는 것은 10명 참석에 6명이 찬성하면 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대표성 없는 무효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통면은 투표 당일 본지 취재에 "정족수는 상관 없다. 투표 참석자 중 과반수만 넘으면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투표 참석자들은 총회 없이 두시간 동안 투표장에 오는 순서대로 투표만 하고 돌아갔으며, 현장에서는 기자 취재를 방해하는가 하면 심한 욕설을 하는 주민도 있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까지 니편내편으로 갈라져 묵은 마을비리까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치닫고 있다. 앞서 2019년 정부 농·산·어촌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개발사업인 '은혜로운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해 미해결 공금 유용 부분이 다시 재점화할 조짐이다. 또 2016년에 조성한 '행복마을'(3억4800만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도 설립 당시 사업비 일부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청통면이 최근 새로 임명한 H씨와도 무관하지 않아 논란이 더 가중될 우려까지 나온다. H씨가 정리한 장부와 '행복마을' 통장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 사업은 당초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보조금 변동 없이 지하 없는 지상 2층만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된다.

여기에 마을(치일1리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7.10.30. 영천시로부터 보조금 1850만원을 받아 2017.11.2. '행복마을' 전기공사 대금으로 Y전기에 100% 그대로 1850만원을 지불했다. 그리고는 2017.12.5. 1000만원을 잔조금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부에는 이 돈을 이사 1인당 125만원씩 8명(합계 1000만원)의 출자금으로 입금 기재돼 있다. 8명의 이사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다. 일부 임원들

과 관계자들은 이 돈이 통장으로 입금돼 있는 것으로 본지에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통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대금이 지급된 2017.11.2.부터 장부에 기재된 2017.12.5.사이 1000만원의 통장 입금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000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2018.1.3.자 잔고는 장부와 통장이 동일하게 5,232,356원으로 딱 맞추어져 있다. 장부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영천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정산)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문제의 '행복마을' 조성사업에는 이같은 유사 사업비 지출이 더 있는데다 소수의 이사들은 "다른 일부 사업들도 전기사업 대금과 비슷하게 지출됐으며, 이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인데 문제가 되느냐"는 반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보조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 더 확대될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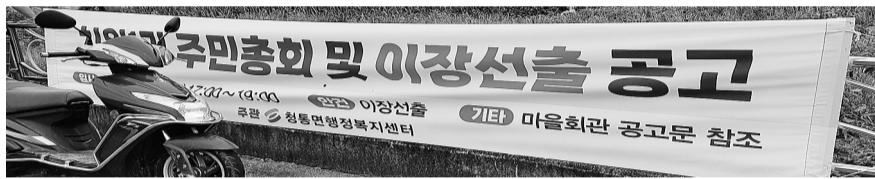
본지 확인결과 이같은 유사대금 지출은 2017.1.13 개인명의로 1400만원, 2017.7.3. 설계용역비 등 7천140만원, 2017.9.29. S종합건설에 1억1천6백34만9천원, 2017.12.26. G가구에 14,998,500원, 2017.12.29. 옥신타일 대금으로 14,703,960원 등이 모두 재검증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와 관련해 장부를 주도적으로 맡아 온 새 이장 당선자 H씨측은 본지 취재를 정식으로 거부했다. 반면 일각의 마을 임원들은 "이번 논란은 마을 비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서로 반목과 마찰만 난무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기회에 차라리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특별 당부와 함께 또 다른 일각의 주민은 "차라리 사법당국에 고발해 철저히 잘못을 가려 다시는 이같은 보조금 농락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강경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번 치일1리 이장 선출에 청통면의 개입이 정당화 될것인지 또 마을 비리가 어디까지 폭로될 것인지는 K씨가 청통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맞물려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공은 법원과 사법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장지수 기자



명을 거부당했다. 제1 당선자 K씨는 선관위원장(노인회장)과 직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청통면에 이장 임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청통면이 이장과 선관위원장의 추천은 믿을 수 없다며 총회참석자 전원의 서명 회의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회의록은 사라지고 현재도 K, H씨 양측은 서로 회의록을 감추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여전히 진행형이다.

반면 이 와중에 앞서 제2 당선자 H씨는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구성해 추가로 단독 이장선거를 실시해 당선됐지만 역시 청통면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문서가 드러나면서(청통면은 관 개입 없다 주장) 논란이 가시화된 한편 또 총회 개최장에서 100만원 금품(물품) 제공 및 급조한 비상대책위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면의 유권해석에 따라 H씨 또한 이장 임명 추천을 반려당했다.(관련 사전 보도내용은 본지 7월 28일자 344, 8월 11일자 345호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청통면이 직접 마을총회 개최를 주관한 후 총회는 하지 않고 곧바로 19일 이장 찬반 투표만 실시해 또다른 적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기에다 앞

뒤말릴 수 밖에 없다.

7월달까지 두 명(K씨와 H씨)의 이장 임명을 거부한 청통면은 이장선거 논란 8개월 만인 지난 8일 직접 치일1리 이장 후보자 등록 및 선출공고(영천시 청통면 공고 제2022-6호)를 하고 4일간(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앞서 이장 임명이 거부된 H씨 1인을 유일한 후보자로 이장적임자 찬반 주민투표를 붙인 것.

결과는 총 유권자 150가구 중 투표참석자 55가구로 이중 찬성 52가구, 반대 1가구, 무효 2가구로 H씨의 이장 선출을 확정지었다. 투표율(주민참여율)은 36.6%에 불과했다. 청통면은 강행해 22일 H씨를 이장에 임명(통보)한 후 25일 임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때문에 청통면(관개입)이 주민총회를 직접 주관한 사실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청통면은 당초 현수막에는 총회를 개최하기로 해 놓고, 총회는 생략하면서 공무원 5명(청통면장 포함)이 19일 후보자 1인(H씨)에 대한 일방적 찬반투표를 붙인 것.

따라서 면이 직접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느냐도 적법성 논란이 지

## 대구·경북신공항 밀그림 나왔다... 국방부·대구시 기본계획 착수

### 11.4조원 투입, 511만평, 2744m 활주로 2본, 700여동 군 시설 경북도, 발 빠르게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검토 기간, 3년~5년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장관, 국민의힘 정치권이 연일 후속 지원을 약속했던 대구·경북신공항 밀그림이 수면 위로 공개됐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18일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 부대 시설 및 배치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K-2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계획을 우선으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

의 위치만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규모는 빠졌다.

기본계획에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2025년에 착공, 11.4조원(이전 사업비 10.5, 금융비용 0.9)을 투입해 약 16.9km<sup>2</sup>(511만평)의 면적에 2744m 활주로 2본과 약 700여동의 군 부대 시설이 건설된다. 민간공항 터미널과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는 군위에, 군 부대 정문과 영내 주거·복지·체육시설은 의성에 배

치된다.

기본계획 용역은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8개사)사가 맡고 용역 기간은 '20.11.6. ~ '22.8월말 용역비용은 32억5700만원으로 설정됐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발표(사업비, 조감도, 사업부지) 8월 18일, ▶기부 대 양여 심의 제출(대구시→국방부→기재부) 8월 말 ▶주민설명회 개최(군위군, 의성군) 8월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협의 8월말~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추진(대구시) 9월~ 까지다.

박찬우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 많

은 관심을 모았던 활주로의 길이에 대해 "민간공항이 사용하는 활주로는 기본계획 상의 활주로 1본을 국토부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며 "국토부 용역에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활주로 건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한 빨리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제한기간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

가능, 최대 5년이다.) 대상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 경북도는 군위·의성 현장소통 상담실도 확대 운영한다.

현장소통상담실은 2020년 11월 군위·의성에 각각 설치된 후 담당공무원이 주2회(화·목 / 10:00~16:30) 출장근무하면서 공항 건설 계획과 추진상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돼 왔다. 장지수 기자

# 이철우, 민선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

### “제2국무회의 만든다” 국정에 시도협 중심 역할 강조



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추대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국회의원 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에 야심찬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취임하면서 이같이 선포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첫 총회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참석한 시

절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간사로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한 바 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제2의 국무회의로 승격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

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나 온 지방시대 30년을 뒤 돌아보면 협의회 구성 20년 동안 중앙정부 간섭의 한계가 분명하여 지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데 따른 정면 돌파 행보로 이 지사의 협의회 제2국무회의 승격 발원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임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는 또 “지방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배급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완전한 지방분권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 영천경마공원 9월 말 착공

### 1단계 사업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주) 2026년 3월경 마무리 예정



장 정기환), 이만희 국회의원, 농식품부, 경북도, 영천시 간 착공 시기를 내부적으로 조율은 진행됐다”고 밝혀 9월 말 착공을 사실상 했다.

이번 1단계 사업은 이날 착공해 오는 2026년 3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내용은 관람대(지하 1층, 지상 4층), 경주로(2면, 모래), 마사(6동), 커뮤니티센터(2층), 동물병원(2층), 공원, 내부 도로와 주차장 등 경마 시설이 먼저 조성된다. 또 2단계 사업에서는 루지, 무동력 놀이터, 숲속 광장, 승마아카데미 등이 들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7일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단 사무실을 서울 본사에서 영천시 금호읍 현장으로 이전하고 다음 달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수 기자

당초 올해 초 착공기로 했던 국내 제4경마장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천시(경마공원건설추진단)는 지난 12일 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를 현대엔지니어링(주)와 계약을 완료하면서 다음 달 말 착공(기공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2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마사회(회

## 경상북도의회, 「2022 을지연습」 참관·관계자 격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2022년도 을지연습 실시에 따라 8월 22일 경북도 총무시설을 방문하여 2022년도 을지연습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국가 비상상황을 대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정부주관 연습훈련이다.



배 의장은 “을지연습이 지난 5년간 축소 시행되어 오다 다시 정상화된 만큼, 공무원과 관계자들은 실제

전시상황에 준하는 실질적인 비상대비 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북청 2022 상반기 베스트 112 선정



영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이 경북경찰청 주관 ‘2022년 상반기 베스트112’에 선정돼 인증패와 유공경찰관이 표창을 받았다.

베스트 112는 3월 2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112종합상황실 긴급신고 지령시간 단축·112허위신고 근절지수 향상·타기능 출동률·112총

력대응 등 주요추진업무를 평가해 시상한다. 영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북청 내 2급지 경찰서 중 1위다.

영천서는 이번 평가에서 긴급신고 지령시간 단축과 112총력대응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지수 기자

## 금호새마을금고 본점 객장을 새롭게 단장(리모델링)해 8월 16일 업무를 개시합니다



이사장	김종열	이사	하태섭
부이사장	정귀용	이사	김한식
이사	최 돈	감사	신문수
이사	조해도	감사	고현태
이사	박수문	감사	고현태
이사	최종순	상무	방형국



**본점** :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03 ☎054)334-0259  
**지점** :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 681 ☎054)335-4132

 MG금호새마을금고 임직원 일동

<관련기사 11면 사실>

# 야사지구토지정리사업조합원 총회 내용 팩트 체크

## 돋보기 분석

본 기사는 본지가 입수한 자료와 21일 야사지구토지정리사업조합원 총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 관계자 등의 추가 반론은 게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사의 내용에는 팩트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기술한다, 따라서 오류부분을 특정해 문서로 제시하는 정정보도 요청은 정중하게 받아들인다. 또 본 기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타지도 빠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다. 반면 조합측은 총회에 대해 본지 취재를 강하게 거부한 사실도 알린다. <편집자 주>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시공사(K토건) 부도로 법정관리로 넘어간 후 2019년 4월 공사 중지 13년 만에 (주)동남(시행대행사)이 참여하면서 다시 재개된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택지사업)이 지난 6월 9일 동남의 실질적 대표(K씨)가 사망하면서 재개 3년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조합 관계자들(택지사업 중단 요구)에 따르면 "사망한 K씨와 관련해 목적외 사업자금 유출이 무려 121억원에 달한다"며 "지금까지 사업을 주도해온 망)K씨와 동남 법인대표 B씨(K씨의 부인)가 사실상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같은 리스크 해결 없이 문제를 야기시킨 주체들이 다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꿈수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택지사업 일단 중단을 외치고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 조합원들은 사업 강행에 동의했다.

### ◆리스크 안고 택지사업 강행에 동의한 조합원들

또 일부 이사는 "택지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다음을 위해 여기서 일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며 "지금 작은 손해를 볼 때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 중단에 뜻을 같이 했다. 즉, "더디지만 안전을 위해서 2006년 K토건 부도처럼 사업을 중단시키고 법정관리 후 새 시행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장과 동남, 차주 및 시공사, 대다수 조합원, 영천시 및 대주단 등은 사업 강행을 주장했다. 그 이유는 "사업 중단은 즉각 조합원 피해로 이어진다. 지금 리스크를 따질 때가 아니다. 잘잘못(형사 고발)은 일단 오는 26일까지인 대출금 280억원의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따져도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업 진행은 어쩔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이 때문에 사업 계속과 일시중단을 놓고 지난 21일 오후 2시 영천시평생학습관에서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결과 시행대행사 변경, 체비지(공동주택용지) 매각 등 4건의 상정안건 중 위 두 건만 처리하는 등 대부분 조합원들은 사업 지속 강행을 선택했다.

### ◆공동주택용지(체비지)매각 승인 논란

하지만 이날 조합원들은 핵심 사안인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두 필지(11,007.1평)에 대한 345억원 매각과 관련해 조건부로 허락을 했다. 체비지 매매계약서 등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각하는지에 대한 문건을 공개하고 조합원이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서류 검증을 받는 조건부 승인이다. 승인 조합원들은 "여기서 통과가 되더라도 향후 검증이 안되면 이번 승인은 무효라며 속기록에 기록해 줄것"을 요구했고 조합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조합 직원(S씨는) "지난해 7월 26일자로 체비지 매매계약이 되어있다. 신탁회사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독려했다. 총회 진행 관계자도 "사업이 완공되면 여차피 체비지는 조합원의 땅이 아니다. 대출금 280억원은 땅을 팔아서라도 갚고 사업을 해야지 방법이 없지않느냐"며 "조합원 여러분은 (환지정리된)땅만 받으면 되는것 아니냐"며 사업 강행의지를 나타

냈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조합원은 "이렇게 말로만 하고 도장 다 찍고난 다음에 잘못되면 보상할 수있나? 지금까지 계약서와 모든 문서 확인 절차가 없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아파트 부지 팔고나면 끝이지 않느냐? 하다 못해 계약서 정도는 (PPT)피워놓고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라"며 반박했다.

여기서 사회자는 "지금 현재상황에서 (조합원)체비지 매각 승인은 사업기간 연장(대출금 상환연장)의 필수요건이다. 전체 큰 틀에서 의결해 주시고, 또 계약서 세부내용들은 대의원 회의에 위임해 주시고, 조합원님들은 대의원회에 세부내용을 체크해 달라면 되니까 이런 조건부로 이번 체비지 매각 건은 대의원회에 위임해 주시는것으로 승인하면 (대출금 상환연장)가능할것 같다"며 추진해 줄것을 부탁했다.

여기서도 또 조합원은 "체비지매각과 사업 변경건은 총회의결권이다. 대의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정관에도 나와있다."고 주장하자 사회자는 "일단 대의원에서 가능하다"며 맞받아 한 때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중에 체비지는 우리땅이 아니다. 그것을 팔아서 우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을 찬성하실지 반대하실지 선택하면 된다. 저는 여차피 우리땅이 아니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345억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된다"며 조

- 동남 실질적 대표 K씨 121억원 목적외 사용...K씨 사망 후 사업 중단
- 속살 드러낸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손가락 자를 일 더 나가면 손목 잘라야"
- 작은 손해일 때 사업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일부 조합원과 이사들
- 땅을 팔아서라도 대출금 상환 연장과 사업 지속 강행하려는 시행·시공 및 조합측

합원의 항의에 불쾌한 반응을 내비추며 "반대 안하시면 좀 밀어주세요"라며 강한 톤으로 응수해 한때 질문과 답변이 격화되기도했다.

결국 이 안건은 "어떻게하든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한다"는 진행자의 발언과 조합직원(S씨)의 "이 건은 총회 의결이 아니다. 사업변경도 아닌 계약변경이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더해 비상대책위원장 까지도 "이 안건은 총회에 불이지 않아도 되는것인데 하도 말이 많아서 안건에 올린 것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앞선 조건부 승인으로 가다를 잡고 체비지 매각을 일단 승인하면서 총회는 사업진행으로 일단락 됐다. 이날 부의 안건 중 조합장과 임원 선출건은 차기 총회로 넘겨졌다.

### ◆택지사업 중단사태와 사업 주체 구성 요소

지금까지 사업중단 사태를 생산한 리스크를 안고 사망한 K씨의 시행대행사가 동남이다. K씨의 부인은 ▲동남의 법적 대표 B씨, ▲총회에서 무능으로 사퇴를 종용받은 조합장, ▲280억원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26개사 대주단, ▲무궁화신탁, ▲280억원 대출 차주 DS\*\*\*\*, ▲동남으로부터 체비지인 공동주택용지를 매각(권리) 받은 DH\*\*\*, ▲조합과 동남으로부터 시공계약한 G종합건설, ▲G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관계인 Y건설, ▲새 조합직원 S씨, ▲기타 K씨 등과 관련된 돈거래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적 요소다.

지난 6월9일 K씨의 사망으로 조합으로부터 사실상 동남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동남은 조합으로부터 2022.6.28. 조합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시행대행사 해지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동남(대표 B씨)은 7.15. 즉각 반발했다. 반발 사유는 조합이 사업진행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 8월21일 총회때의 조합 사업감



행 의지와는 정반대로 대비되는 사유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복박전이 벌어진다. 새 시행사를 찾아 택지사업을 지속하려는 조합측과 계속 택지사업을 지배(유지)하려는 시행사권리가 충돌한 것이다.

### ◆대출금 연장에 목 매는 이유

문제는 2022.8.26.이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상환만기일이다. 코앞에 다가온 대출금 연장이 불발되면 사실상 택지사업은 여기서 종료할 수밖에 없다. 대주단은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회수절차를 밟을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바로 대출금 280억원을 빌릴때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들의 체비지가 모두 공매절차를 밟게 되면서 조합원들은 이유도 모르게 땅만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였다. 또 연장이 안되면 사실상 동남과 차주 DS\*\*\*\*, 조합장 등 280억원 대출금 연대보증인들도 파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택지사업 강행은 필수다. 이번 사태의 잘잘못을 가려 몸집을 가볍게한 후 다

음 기회에 새 시행사를 끌어들이 사업 성공을 기원했던 몇 안되는 일부 이사들과 조합원들은 관련된 리스크를 털기위해 사업 일시 중단을 주장했다. 반대로 위기에 놓인 연대보증인 등 막대한 피해 예상자들은 사생결단으로 자신들이 포함된 사업강행에 사실상 목숨을 건 것이다. 그 첫 단초가 바로 대출금 상환기일(2022.8.26) 연장이다. 이런 와중에 조합장은 우왕좌왕으로 이편을 들었다가 저편을 드는 등 설왕설래해 비난을 받고 있다.

- ◆조합장 급여 500만원... 3년간 월 평균 3백만원
- ◆우왕좌왕하는 조합장... "이제 그만 내려주세요!"

"조합으로부터 한푼도 받지않고 오히려 자신의 돈 수억원을 들여 받지도 못하고 오직 택지사업 성공만을 위해 봉사했다"는 조합장, 사표를 던졌다가 다시 사표반려한 조합장, 동남을 시행대행사 해지했던 조합장, 강압에 못이겨 대출 관련 준비 서류에 도장 찍은 조합장 그러나 이제는 또 동남을 끌어 안았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에서 조합장은 2020.10.부터 지난해까지 매월 500만원씩의 급여를 받아가는 등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모두 1억1천만원을 받는 등 월 평균 3백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조합운영비 중 1억8500만원을 망자 K씨에게 임의로 차용해 주고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해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것으로 알려져 당시 상무와 함께 현재 배임혐의로 사법당국에 피소됐다.

또 조합장은 "2022.7.28. 사업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대출금(280억원) 상환 연장을 위해 조합 사무실을 예고도 없이 찾아 온 동남과 대출금 차주 DS\*\*\*\*, 체비지를 매각권을 받은 DH\*\*\* 등이 조합장 직인이 들어있는 금고문



을 강제로 열 수 있는 열쇠업자를 대동해 강압적으로 자신을 협박해 이를 이기지 못하고 동의서에 날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의원 동의를 받았으니 오늘(7.28.)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된다고 고함을 질렀고, 영천시청 관련 과장 및 담당과 경찰 등도 이날 다녀갔다"며 본지에 이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유로 일부 이사들로부터 이날 초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서가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총회에서 복수의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무능해 이렇게 만들었다.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않고 대안도 없으니 이제 그만 (조합장)자리에서 내려와 달라"고 성토했기도 했지만 조합장은 꾀꾀하게 버텼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측과 동남 및 DS\*\*\*\*는 대출금 연장을 위해서도 지금 조합장 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럴 여유와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의 말미에 결국 다음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을 하기로 정했다.

### ◆공동주택용지(체비지) 누가 누구에게 매각하나

또 이사 및 일부 조합원들에게서 동남과 관련한 대출금 차주 및 체비지 매각대상 DH\*\*\*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씨 사망 후 사실상 동남은 K씨의 부인 B씨가 지배하고 현재 택지사업 존속을 주도하고 있다. 280억원 대출금 차주인 DS\*\*\*\*의 대표가 B씨의 조카로 알려졌고, B씨가 선택한 체비지 매각대상 업체인 DH\*\*\* 대표는 망자 K씨의 측근인데다 DH\*\*\*사내 이사가 바로 B씨 자신 이라라는 것. 결국 이사들은 "공동주택용지(체비지)를 B씨가 B씨 자신에 매각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문으로 이는 "꿈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모든 조합원들이 이같은 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합장이 직권으로 채용한 새 직원 S부장에 대해서도 이들 이사와 조합원들은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S부장은 앞서 사망한 K씨(동남)의 고문으로 재직하던 바 있는데 조합과 관련이 없는 Y모씨가 추천하고 전 조합장까지 가세해 채용했다"고 밝히면서 "어제는 동남 고문 오늘도 조합직원인 S씨가 특채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 S씨는 본지 취재를 강력하게 거부했다.

앞서 총회 자리에서 한 조합원은 "동남의 이번 사태(리스크)를 감안하면 대출금 280억원 중 남아있는 사업비는 70억원뿐인데 적어도 120억원은 다시 갖고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현재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 되는데 나중에는 손목을 자르는 일이 될것이다"며 이번 사업 강행에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사업을 강행하려는 조합장과 동남, 그리고 차주 및 DH\*\*\*측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논리다.

# 市, 우로지 메타세콰이아 길 ‘오색빛’

### 사업비 3억2천9백만원 투입 경관조명 공사 조성 완료

영천시는 언하공단 완충녹지를 활용해 2021년 조성된 우로지 자연숲 메타세콰이아 길에 경관조명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우로지 자연숲 메타세콰이아 길 경관조명 사업은 올해 사업비 3억2천9백만으로 6월 16일 공사를 시작해 총 길이 560m에 ‘나의 마음속으로 걷는 길’을 주제로 나무 사이사이에 스텝등 108개, 수목투사등 142개가 설치돼 있다.

치유 숲 광장에는 숲을 연상시키는 꽃·곤충등과 영천의 상징 별 그림이 새겨진 필름을 조명에 넣어 바다에 비추는 ‘고보조명’을 활용했다.



숲에는 또 가든 스피커 23대를 설치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명상 산책길도 조성돼 있다.

이번 경관조명 설치로 영천시는

이곳이 안전한 산책길은 물론, 야간 경관을 높이는 불거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기자

# 市,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확보

### 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대응 마중물 기대

영천시가 확보한 16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부터 2년 동안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 다양한 일자리와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 10년간 정부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영천시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사업계획 평가 결과 17개 지자체(20%)에 포함되어 총 사업비 168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을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배분금액을 의결했으며, 배분금액과 자문의견을 반영한 사업 재조정을 통하여 최종 8월말 확정된다.

영천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차례에 걸친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 컨설팅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목표와 방향성을 정립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거쳤으며, 시설 투자사업과 운영 관련 사업 등을 적절히 배분하여 3대 추진전략과 6개 사업을 도출, 내실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김효정 기자

# 영천시, 추석 선물은 농특산물 쇼핑몰 ‘별빛촌장터’



영천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10일간) 영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추석을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별빛촌장터(01000.yc.go.kr)’에서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별빛촌장터에서는 복숭아, 포도 등 각종 제철 과일과 전통장류, 양념류, 와인등 약 70여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우수 농특산물을 20% 할인

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신규 회원 가입시 할인쿠폰(3,000원) 발급과 상품 구입금액의 5%가 적립된다.

시는 이번 행사 기간 중 구매 금액이 높은 고객 10명에게 사은품을 증정하고, 상품 구매 리뷰 작성 고객에게는 적립금(2,000원)을 지급한다. 또 이중 우수 리뷰어 5명을 선정하여 최고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할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 청도군, 대중교통 주민 서비스 환경정비 나섰다



### 풍각면, 승강장(19개소) 거울 설치

청도군(군수 김하수) 풍각면은 지난 17일 관내 대중교통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거울 설치 및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

풍각면은 면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승강장 이용시 불편한 점을 고민함으로 19개소의 승강장에 거울 설치를 진행했다.

승강장에 설치된 거울은 후방에서 접근하는 장애물을 미연에 확인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존 타 시도의 승강장 설치 거울은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옷 매무새를 확인하는 용도의 목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많다.

# 경북도, 2022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 22일부터 전시체제 전환 이철우 지사, 영천시 방문

경상북도는 22일 0시부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평소 도정에서 전시 도정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道는 실국별 전시 임무 수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기능 유지, 국민생활안정 유지에 빈틈없는 대응에 들어갔다.

후속으로 해당 실국장은 전시대비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 후 국가 비상사태별 사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실제 훈련에 대비했다.

또 전시체제로 전환 후 부서를 통폐합해 시행하는 전시직제훈련과 지역주민의 안전보장과 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시 창설기구 훈련도 실시됐다. 군·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군경 합동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지사의 효율적 지휘·통제가 실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을지연습 기간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연습성과가 거양되도록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 연습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 4면에 이어

- ◆택지사업 방해자 누구?
- ◆채비지 또 다른 근질권 설정(100억원)

반면 사업 강행측은 “어떻게라도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사업은 강행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모든 지출은 조합의 허락없이 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니 믿고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면서도 “사태가 이지경이 된것은 몇몇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이날 총회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반대 이사들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택지사업 중단사태로 사업강행측과 사업중단측은 상호간 고소·고발전이 전개될 양상이다. 현재 일부 이사들과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전 상무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을 상대로는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또 동남대표 B씨와 B씨가 사내 이사로있는 채비지 매각 대상 업체 DH\*\*\* 대표를 각각 사기, 위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소된 것으로 파악되고있고, 반대측에서도 택지사업 업무방해 등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쌍방 고소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출금 280억원은 전국 새마을금고 26개사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무궁화신탁을 경유해 택지사업지구 채비지 47필지 53,726.9㎡(약 1만6000평)이 담보로 저당됐다. 채비지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무궁화신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100억원 가량의 근질권이 채비지인 아파트용지 2필지(11,007평)와 주차장부지 2필지(약490평)에 각각 계약된 것으로 파악된다. 두 건 합계 금

액은 1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권 채비지 목록은 B1-1, B2-1, D1-1, D2-1으로 조합은과 동남은 2020.1.8.이후 질권자의 승인없이 질권 부지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 매매 등을 할 수 없도록했다. 2021.8.26.자 신탁계약 또는 2022.7.26.자 동남과 DH\*\*\*간의 채비지 매매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다 G종합건설과 동남(K씨)간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면계약이 따로 존재하면서 40억원의 리베이트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 ◆수상한 돈 흐름

또 대주단에서 대출금이 실행될 당시 2021.8.27 대출금 280억원이 차주 DS\*\*\*\*통장으로 입금 되면서 이날 하루만에 순간적으로 약108억원이 빠져나간 후 같은 시각에 남은 잔금 171억8000만원만 뒤늦게 무궁화신탁사로 정상 입금된 것으로 파

악된다. 차주가 빌린 돈이어서 당연히 차주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 맞지만 불과 수 시간만에 돈의 흐름이 예사롭지않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망자 K씨와 관련해 사업목적으로 빠져나간 금액만 다섯곳에 무려 85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이상한 돈 흐름은 K씨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는게 금융 전문가의 지적이다. 조합장의 직인과 신탁관리의 동의를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조합 직원은 총회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탁사, 그리고 K씨가 공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는 불행이다”고 밝혀 일부 조합원들이 술렁이기도 했다.

신탁계약의 종속도 문제를 살펴본다. 본지가 입수한 신탁계약 제13조에는 신탁부동산이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에 부족함이 발생하면 수탁자

(신탁)가 인정할때까지 새마을금고 채권확보를 위해 조합은 신탁계약의 추가목적물을 제공하도록해 종속 굴종계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제 19조에는 담보물건의 처분도 신탁사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출금 신탁담보와 관련해 토지 담보제공자(위탁자)는 조합이고, 우선 수익자는 새마을금고다. 이를 조합장이 계약서에 날인하므로써 사실상 조합원의 채비지(신탁 부동산)는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갔다. 이 모두 고의 아니면 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한편, 영천시와 대출금 대주단, 일반 영천시민, 대부분 조합원, 그리고 사업 강행측은 모두 택지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있는 가운데 조합 S부장 채용을 추천한 A모씨는 “영천시가 택지사업 성공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건물을 우선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 금호중, '2022 춘계 전국 남녀중고 배구대회' 우승

2022년 올해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성적 거둬

금호중학교(교장 김영한)는 배구부가 충북 옥천군에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2 춘계 전국 남녀중고 배구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전했다. 전국의 16개팀이 참가한 16세 이

하 남자부 경기에서 8강전에서는 남성중을 2:1로, 4강전은 연현중을 2:0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 승리의 기세를 몰아 16일 결승전에서는 문흥중을 2:0(25:19, 25:1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금호중학교는 2022년 올해 2번의 우승과 2번의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김효정 기자



# 영천동부초, 우리소리 찾아가는 아이들의 '제2회 영재한음회' 공연

영산희상 '타령' 연주

영천동부초등학교(교장 김철연)는 국악관현악단 '우리소리 찾아가는 아이들'이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 M 씨어터에서 '제2회 영재한음회'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동부초등학교는 2006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 2014년 '영천청소년 국악관현악단(우리소리 찾아가는 아이들)'으로 발전해 연1회 정기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주는 영산희상의 한 종류인 평조희상(총 8곡) 중 일곱 번째 곡 '타령'을 연주했다. 타령은 비교적 빠른 속도감에 흥겨워 관현악 합주뿐만 아니라 궁중무용 반주음악으로도 많이 쓰이는 곡이다. 한편 아이들의 공연은 국악방송 '영재한음회'를 통해 TV로 방영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 영천여자고등학교 '제60회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학생 탁구대회' 여고부 단체전 우승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허영선)는 탁구부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라남도 장흥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60회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학생 탁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고 19일 전했다. 영천여자고등학교 탁구부는 16강에서 시드배정을 받아 8강전에서는

청주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를 4:1로 승리, 4강전은 안양여자고등학교를 4:3 승리로 결승 진출, 결승전은 수원 청명고등학교를 4:2로 승리해 전국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여고부 단체 우승은 영천 여고이고 공동 3위는 대구 상서고와 안양여고이다.



# 영천교육지원청, 영재캠프 운영

'신나는! 창의·융합' 체험형 진행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주원영)은 영재캠프 참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과학지식 습득으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를 바라며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 「즐거운 여름! 신나는! 창의·융합 영재 캠프」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프에서 초등부는 매직큐브 2022, 자외선 공기청정기 등의 프

그램, 중등에서는 스마트한 무선 충전기, 적외선 추적 자동차 등을 주제 창의융합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문제도 되짚어보도록 진행된다. 올해 창의융합 영재캠프는 영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초, 중등학생과 지도교사 및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53명이 참가했다.

김효정 기자



# 선화여고, 7560+운동실천학교 '다다다 프로젝트'

선화여자고등학교(교장 김무상)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다다다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꿈이 자란다, 가슴이 편다, 선화 잘한다'라는 뜻을 지닌 '다다다 프로젝트'로 7560+운동실천학교 운영으로 행복한 학교생활과 평생 스포츠 활동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7560+운동실천학교란? 일주일(7일)에 5일 이상 60분 이상(+) 운동을 하자는 의미로 운동량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운동할 기회를 주고 신체활동 참여로 습관을 형성해 건강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체육수업과 연계해

스포츠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가 주최자가 되어 트램플린, 미니 탁구, 미니 볼링 등 다양하고 색다른 스포츠 기구를 마련하여 운동을 생활화하고 그 외에도 랜덤 플레이 댄스, 우리끼리 사부작(신발과넥, 릴레이 제기차기, 넷볼, 굴러라! 볼링 한마당, 라디오 사연과 함께하는 버스킹)도 진행된다.

김효정 기자

#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바이오기술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교장 정미정)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11회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가 주관해 바이오산업 분야 기술 아이디어와 연구력을 겨루는 대회이다. 대상 수상은 '보리커버리(recovery)'라는 팀명으로 참가해 보리

수를 수업시간에 배운 실험으로 추출해 그 효능을 이용한 마스크팩 제조를 연구 주제로 수상했다.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3팀은 이번 대회에서 각각 대상(보리커버리), 동상(대상추앙팀), 장려상(천연바이오)을 수상하여 모든 참가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해 바이오 분야에서의 배양 공정, 분리정제 공



정, 기기분석 공정 등 전과정을 재학 내 이수한다. 김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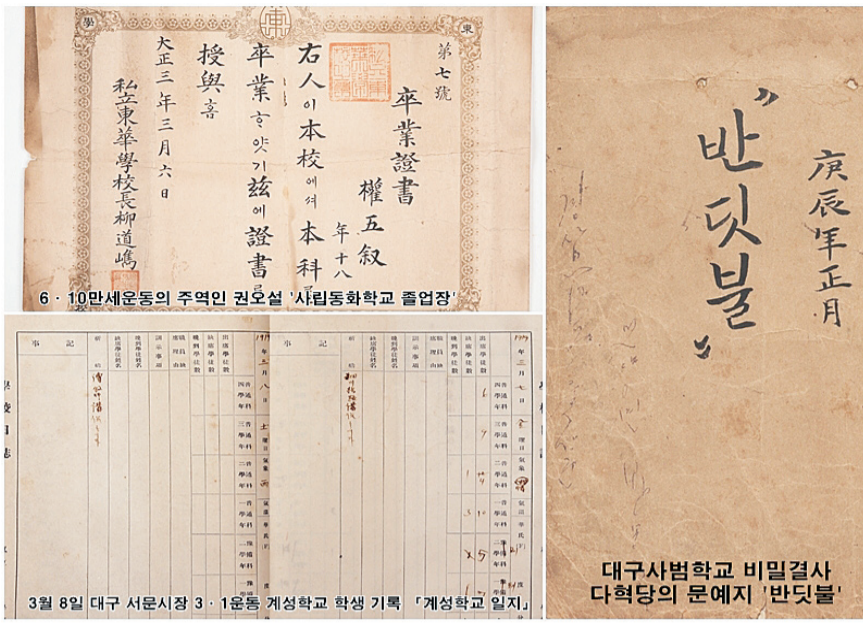
#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식민지 조선학생이여, 꺾기하라!’ 특별기획전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관장 정진영)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경북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알리고, 그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식민지 조선 학생이여, 꺾기하라!”라는 주제로 이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경북 학생들은 3.1운동에서는 만세운동 계획·주도하는 등 시위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하고 1929년 광주학생항일운동을 거치며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중일전쟁당시(1937년) 일제가 학교를 군대의 보조기관 및 인적 수탈의 장으로 만들 때 경북의 학생들은 독립의 절호 기회로 인식해 다학당(대구사범학교)·태극단(대구상업학교)·조선회복연구단(안동농림학교) 등을 조직해 항일투쟁을 펼쳤다.



이번 특별기획전에서는 일제강점기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의 교과서·졸업장·학교일지·문예지·회고록 등 학생항일운동과 관련된 유물과 자료를 전시한다. 특히 6.10만세운동의 주역인 권오

설이 신학문을 배웠던 「사립동화학교 졸업장」, 3월 8일 대구 서문시장 3.1운동을 주도했던 계성학교 학생들의 기록인 『계성학교 일지』, 14세의 어린 나이로 3.1운동에 참여했던 대구 신명여학교 「김학진의 회고록」



대구사범학교 비밀결사 다학당의 문예지인 『반딧불』, 고문으로 순국한 대구상업학교 태극단 단장 이상호의 「사회장 조사」, 안동농림학교 학생의 「학도병 입대 사진」 등이 전시된다.

또한 경북 학생들이 식민지 교육에 정면으로 맞서며 외친 격문들을 활용한 체험, 과거와 현재를 이어 역사를 되돌아보는 체험, 포도존 등 다양한 체험전시가 마련됐다. 장지수 기자

## 고온다습과 장마 반복... 약용작물 피해 우려

경북농업기술원, 주의 당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이상 기후에 따른 약용작물 농가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올해 봄철 가뭄과 이상저온현상이 번갈아 지속되고 사이짓기 약용작물이 많아 장마기에 취약할 수 있다.

약용작물은 뿌리사용이 많아 활착과 생육이 부진한 상황에서 많은 비는 병해충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고온다습이 반복될 때 식물병이 발생하기 쉽다.

천공의 경우 3일 이상 침수가 지속되면 뿌리가 썩고 수확이 불가능해 수시로 배수로를 점검하고 비온 뒤에 병해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황은 잦은 강우 시 뿌리 썩음병에 특히 취약해 수량성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 청도읍 사촌1리, 나라사랑은 태극기달기... 전체 52가구 자발적

광복절 의미 되새김, 나라사랑

청도군(군수 김하수) 청도읍 사촌1리 마을이 지난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펼쳤다.

사촌1리 마을은 이번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는 태극기를 배부하여 자발적으로 전 가구(52가구)가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류성영 사촌1리 이장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태극기를 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태극기달기 운동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태극기달기에 동참하는 주민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부 청도읍장은 “주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촌1리 이장 외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북도, 추석전 식품류 일제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

경상북도는 시군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일제점검과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사고를 예방 홍보 활동을 1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 음식, 추석 선물용 가공식품 등 추석 명절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할 방침이다.

또 위생 점검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사용원료,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등이다.

식중독 사고 예방으로는 ▷교차오염을 방지(조리와 비조리, 조리 사용 도구 등 ▷가열 조리식 2시간 내 밀폐용기 담아 냉장 보관 ▷섭취 시 반드시 재가열한 후 섭취하기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견과류(땅콩 등) 밀봉보관(냉장 또는 냉동) ▷곡류·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해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경북도교육청, 미래 비전 선포

세계 10대 도시 네트워크 통한 국제 교류 활성화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17일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 대공연장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2026 경북미래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기 비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2기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전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를 선정해 주제로 삼았다.

이번 비전 4대 정책 방향은 ‘삶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지원’이다.

‘삶이 있는 교육과정’은 유치원은 놀이를, 초등학교는 학습자로 성장하고, 중학생은 자신의 배움을 찾는 반면, 고등학생은 진로를 디자인 해 삶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힘이 되는 미래교육’은 메타버스 실험실, 디지털지식 온마루 등을 구축하여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또한 사이버도독학교 세계화, 경주 중심의 세계 10대 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에서는 공정한 기회 보장과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학습준비물, 현장체험비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중대 사안 및 긴급복지 초기지원팀 신설로 위기 대응력을 높이며, 에듀버스, 에듀택시 도입 외에도 진로융합체험교육관을 설립해 학업 중단 예방과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청은 ‘혁신하는 학교 지원’으로 학생의 성장과 조화로운 학교를 위해 환경, 문화, 시스템을 혁신하고, 쾌적한 클린학교 지원, 3무 없는 급식, 3S 업무경감 시스템, 정책 혁신 아카데미 등을 도입해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만들기를 추진한다. 김효정 기자

# 市, 교육청에 영천 주소갖기 협조 요청 '2022년 영천 교육행정협의회'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과 영천시청이 상호 협력강화를 통해 교육행정과 시정 발전 도모를 위해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영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영천교육지원청은 감성디자인으로 바꾸는 색채환경 개선사업 확대 및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확대, 가칭) 경상북도교육청 영천도서관 설립 등을 안건으로 요청했다.

반면 영천시는 영천 주소 갖기 운동 협조 및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간 현장점검 실시 등을 요청했다.



다. 양 기관은 각 안건을 상호협력과 공동 참여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영천 교육행정협의회는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2010년에 교육장과 영천시장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17명의 위원 구성

으로 매년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 추석앞 축산물 안전점검... 다음달 6일까지

영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5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2개 반 6명을 편성하여 부정축산물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축산물 둔갑 행위 및 유통기관 경과제품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온도 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 검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작업장의 위생상태 및 축산물 이력 표시사항 등이다.

특히, 축산물 운반차량의 불법 온도조절 장치(뚝딱이) 설치 여부, 계란 취급업체의 계란 적정 보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부정축

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효정 기자

## 찾아가는 6·25전쟁 희귀 사진전

국립영천호국원 - 신용보증기금

국립영천호국원(원장 이상순)은 대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6·25전쟁 희귀 사진전'을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신용보증기금 1층 로비에서 개최했다.

두 기관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 받은 자료와 영천호국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희귀 사진 액자 35점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2022년 을지연습의 일환 호국안보의식 고취가 목적이다.



이번 사진전으로 신용보증기금 소속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인근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6·25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한다.

## 제21회 영천과일축제... 한약축제와 동시 개최

10월 14~16일까지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영천과일축제가 올해는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한의마을에서 사흘간 한약축제와 동시

에 개최될 예정이다.

조상진 영천과일축제 추진위원장(농협중앙회 영천시지부장)은 지난 19일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제21회 과일축제 개최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회의는 김천덕 영천시농축협운영협의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주요행사로 제1회 영천 포도피플(홍보대사) 선발대회, 과일품평회, 과일홍보영상공모전, 체험부스운영, 과일판매장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 공장 근로자 끼임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영천 금오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7분께 경북 영천 금오읍에 있는 국제금속 사업장 소속 A(45) 씨가 자동 적재기 조정 작업 도중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어 숨졌다.

국제금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영천시의회  
YEONGCHEON CITY COUNCIL

# 영천시의회는

## 시민여러분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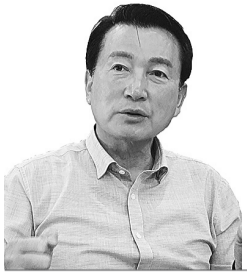
###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더 낮은 자세로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이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제9대 의원>>**  
**김용문, 이영우, 배수예, 김선태, 김종욱, 이영기, 권기한, 이갑균, 김상호, 박주학, 우애자, 하기태**



우종철 칼럼



우종철 논설주간  
일요서울

건국 74년과 이승만 '바로 세우기'

올해는 건국 74주년 되는 해이다. 많은 선각자가 있었지만, 우남(禹南)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을 빼고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논할 수 없다. 나당연합으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김춘추(태종 무열왕)처럼, 한미동맹으로 자유통일의 기반을 만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 대한민국 변영의 기틀을 다진 '건국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가난한 선비인 이경선(李敬善)과 김해김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1898년 독립협회 간부로 대한제국 전복 혐의를 받고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1904년 민영환의 감형 주선으로 5년 7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승만이 약관 30살(1904) 때 한성감옥에

서 쓴 <독립정신> 중 "통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근본이다. 신학문을 배워 경제적 이익을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략)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데서 청년 구국운동가의 국정철학을 엿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3월 김용욱 교수는 KBS 1TV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괴뢰"라 지칭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 대통령을) 당연히 파내야 한다"고 망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 '친일파'로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과(過)가 있지만, 공(功)이 훨씬 크다. 이제는 그 분을 음지에서 양지로 모셔야 할 때다. 집권 12년 동안의 주요업적을 살펴보자.

'정치 분야'에서는 해방 후 사회주의의 발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나라를 세웠다. '군사 분야'에서는 북한 집략군을 격퇴하고 국군의 규모를 '63~70만 대군'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한국 자본주의를 태동시켰다. '교육 분야'에서는 78%에 달하던 문맹률을 퇴치하기 위해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양반제도 타파, 남녀평등 보장, 한글전용 정책

을 시행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의 업적은 '외교 분야'에서 그 빛을 발했다. 이승만은 1941년 6월 <일본내막기(Japan Inside Out)>라는 책을 출간, "머잖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몇 달 뒤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해군기지(진주만)를 공습하였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명망을 쌓을 수 있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유엔과 미국 등 30여 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6·25전쟁의 휴전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공노명 전 외교부장은 이렇게 증언했다. "아이젠하워가 53년 휴전협상을 이승만에게 편지로 설득하자 그는 '휴전을 찬성하지는 않으나 묵인하겠다'며 세 가지 조건(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한국군의 현대화, 미 해·공군의 한국 잔류)을 내걸어 관철시켰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거저 얻은 게 아니다"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의 저자 오정환은 "이승만은 ▲전제왕정에 대항한 근대화 혁명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민족주의 혁명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주의 혁명 등 '삼중혁명'을 일으켜 이 땅에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혁명가"라고 말한다.

이처럼 이승만은 국제정세에 밝았으며, 애

국·애족심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노선을 견지한 건국의 원훈(元勳)이었다. 건국 대통령의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다. 자기 조국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애국심이 생겨날 수 없다. 이제라도 건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團生散死단생산사)"는 이승만의 건국정신이 필요한 때에, 그의 덕업(德業)을 경모하는 필자의 자작한시를 소개한다.

天涯漂泊放浪人(천애표방방랑인)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방랑인의 삶을 영위했고  
革命三重萬苦辛(혁명삼중만고신) 삼중(왕정/민족/자유) 혁명을 위해 천신만고 했네  
有主有神宗教切(유주유신종교절) 절대자와 신이 있는 종교가 절실했고  
無民無衆反省眞(무민무중반성진) 국민도 대중도 없는 민주주의 반성은 진실했네  
北邦共對持安保(북방공대지안보) 북방(러/중/북) 공산침략을 물리쳐 안보를 지켰고  
國聯同盟脫國貧(국연동맹탈국빈) UN지원과 동맹을 공고히 해 국가 가난을 탈피했네  
九十風霜終魄散(구십풍상종백산) 구십 평생이 (해외에서) 낮이 흠어져 타계했고  
元勳墓域四時春(원훈묘역사시춘) 국부(원훈)의 묘지에 언제 봄처럼 가득차네

노계(蘆溪) 흔적 다시 찾는다

영천향토사연구회(회장 이원조)가 직접 세운 '노계박인로유적지비'를 세운지 26년만인 지난 20일 회원 10여명과 함께 다시 찾아 나섰다.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국민청소년수련원 내 약선마을 명칭 노계마을로

26년 전 세운 노계(박인로) 기념비 찾아 나선 영천향토사연구회  
경주(산내면) 국민청소년수련원 내 약선마을 명칭 노계마을로



▲1996. 6. 23. 본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적지 표석비 설치 작업의 일환으로 경주시 산내면 청소년 수련원내에서 '노계 박인로 유적지' 비를 설치후 회원들의 기념 촬영.

연구회는 1996년 노계 박인로 선생의 은거지이며 '노계가'를 지은 곳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 수련원 초입에 '노계박인로유적지비'를 세운 바 있다. 그 근거는 노계문집 중 노계가(蘆溪歌)에서 찾는다.

노계가 중 "서까래 몇 안되는 달팽이집을 배산임류(背山臨流) 하여 오류변을 끼고 깎아지른 듯 높은 벼랑 긴 숲 아래 계곡 바위에 의지해 초가정자 한두 칸을 열었다"고 기록되었다. 바로 문집에서 말하는 노계곡(노계골짜기)을 일컫는다. 지금의 수련원 초입이 아니라는 의미다. 노계(蘆溪)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갈대가 많은 시냇가를 의미한다. 배산임류(背山臨流)는 이런 갈대 많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 등 성이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노계기념사업회 전 사무국장은 말한다.

이와 관련해 답사팀은 "노계곡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자 했으나 현 약선마을 뒤편이라는 주장과 수련원 맞은편 폭포가 있는 계곡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는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한 답사를 재개하기로 해

이번에 26년만에 답사길을 나선 것이다.

이날 답사팀이 찾은 비석은 26년을 한 자리에서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었다. 비는 철이 벗겨지고 이끼가 뒤덮인 채로 키 큰 나무들 뒤편에 가려졌다. 회원들은 미리 준비해 간 이끼 제거제와 청소 솔로 비석에 낀 이끼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주변을 청소했다. 비가 내린 관계로

벗겨진 비석 글씨에 흰 페인트를 덧칠 작업은 다음으로 미뤘다는게 이들의 답사 전언이다.

한편, 이날 답사팀을 맞이한 국민청소년수련원 이주환 원장은 "수련원 내에 있는 약선마을의 명칭을 노계마을로 바꾸고 '노계박인로유적지'비를 마을 입구로 이전해 이곳을 노계 정신이 깃든 장소로 변화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팀은 전했다.

노계 박인로 선생은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한국가사문학의 3대 시성이다. 임진왜란때는 의병장 정세아의 휘하에서 별시위로 왜군을 무찔렀고, 이후 수군절도사 성윤문에게 발탁되어 그 막하로 종군하였다. 1599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조라포 수군만호에 올랐다. 사직 후에는 고향에 은거하며 독서와 시작에 전심하여 많은 걸작을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는 조흥시가, 누항사, 선상탄, 사제곡, 영남가, 노계가, 입암별곡, 소유정가, 노계집 등이 있다.

노계 박인로기념사업회 전 사무국장은 "노계 선생의 움거터는 산 중턱에 지금도 움막 흔적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선생이 8년간 기거했으며 때문에 선생의 호도 그때 노계로 바뀌었다"면서 또 "앞서 국민청소년수련원 측과 협의해 노계 움막터 인근 6,000여평을 기부채납받아 그곳에 노계기념관 건립계획도 세운바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인사... 의회전문위원 파견 복귀, 의회와 인사갈등 마무리

A씨 복귀 ▶박상우(사무관) 의회 파견

영천시와 영천시의회간 파견인사 논란이 일단락 됐다. 지난 7월1일자로 의회전문위원(사무관)으로 파견 발령했던 A씨에 대해 영천시가 13일자 파견 복귀시켜 복안면장으로 인사조치 하면서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A씨를 의회 전문위원으로 기관 파견발령했다. 하지만 의회는 영천시가 기관 파견을 하면서 파견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집행

부 인사하듯 원하지 않는 人事를 단행했다며 거부해 한 때 양 기관간 人事 강행과 거부로 팽팽한 긴장감이 돌면서 기싸움 갈등을 빚어왔다.

따라서 영천시의 이번 수시인사는 A씨의 파견에 대한 의회와의 인사 갈등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12일까지 완료되는 사무관 승진 보수교육 대상자들의 보직을 공백 없이 13일(토요일)자로 승진임용하므로써 부서장 업무공백을 최소화한 한편, 파견인사 마찰에 따른 A씨를 복귀시키고, 대신 박상우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를 영천시의회사무국으로 파견발령했다.

이 때문에 일부 부서장의 자리이동도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복귀시키면서 대신 박상우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를 의회사무국으로 발령했고, 종합민원과장 자리에는 조분태 인구교육과장을, 다시 인구교육과장 자리에는 윤동훈 복안면장을 각각 발령조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동훈 복안면장을 인구교육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정부 사업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한 일환이다. 정부 정책 중 '이웃사촌마을' 사업에 400억원, 인구대책을 위한 인구소멸기금 정부지원이 최소 80억원에서 200억원 규모의 두 거대 사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과 송지영 주무관(시설직)을 인구교육과로 보완(이동) 인사 하는 등 수시 소폭 긴급인사에서도 효율적인 적재적소 배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영천시는 영천시의회 파견인사 거부에 따른 대책으로 사무관 승진의결 대상자들의 보수교육이 끝나는 12일쯤 A씨의 파견 복귀를 우회적으로 약속한바 있다. 이번 긴급 수시인사는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기위한 일환이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의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격려 방문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대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 여성농업인, 지방시대 농업대전환 주역 돼 달라”

경상북도는 24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김미점)가 풍요로운 농촌의 미래! 경북 한여농과 함께!라는 주제로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여성농업인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 비전선포식과 함께 체육행사,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화합행사가 펼쳐졌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후에 참석해 김미점 회장의 손을 잡고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는 여성농업인이다"며 "농업대전환을 선도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는 한국농업경영인 배우자와 여성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통한 복지농촌건설을 목적으로 1997년 창립돼 현재 23개 시군 1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24일 오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영천시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며 관계 공무원 및 훈련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영천시의회 의원들은 2022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청취하고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하기태 의장은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훈련이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는 훈련만큼 국가 위기상태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훈련



연인 만큼 국가 위기상태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훈련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재향군인회원 36명 계룡대 안보 연수

신성철 회장 “나라사랑 정신 함양, 안보의식 고취, 회원 단결 강조”

영천시재향군인회(회장 신성철) 남녀회원 36명은 지난 19일 호국간성의 요람인 계룡대를 방문하여 안보 연수회 및 군 시설 체험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대한민국 군 역사를 되돌아보고,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지역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화합이 목적이다.

이날 재향군인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에서 각 군별 영내투어를 거쳐 군 기록전시관에서 군 역사를 재인식하고 반공의식을 함양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또 영내투어에 이어 회원들은 영내식당에



서 병영식사 체험, 간이사격장 페인트탄약 사격체험 등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군사체험 기회도 가졌다.

신성철 회장은 이날 계룡대 견학 후 회원들에게 "우리 재향군인회는 안보단체로 일반

시민들보다 더욱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최첨단 시설을 오늘 견학하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안보단체가 되도록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유물기증 받습니다” 첫 기증자 조특레씨

영일정씨 19세기 생활상 고문서 25점 23일 영천시에 무상 기증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첫 유물 기증식이 22일 영천시청에서 있었다.(사진)

기증자는 대구 거주 조특레씨. 기증 유물은 영천 영일정씨 19세기 생활상과 가문의 대소사 및 지역사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제만서합집(祭挽書合集) 필사본과 간찰(簡札) 등 2건(25점)이다.

기증자 조특레씨는 대구에 거주한다. 유물은 조씨의 할아버지와 사돈관계인 자양면 거주 정화식 옹과 주고받은 서신도 포함돼 있다. 또 정화식 옹은 신녕면 정향숙 계장의 친



할아버지로 조씨와 정계장이 논의해 영천시립박물관 첫번째 유물기증자로 탄생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제1호 유물기증식을 시작으로

로 지속적으로 유물 기증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따라서 시는 영천 지역 고고·역사·근현대사·학교·산업사 등 관련된 물품을 보유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며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최기문 영천시장은 조 씨로부터 유물 무상기증을 받은 후 기증식으로 감사 인사와 함께 "기증해 주신 유물은 영천시립박물관 전시와 학술, 교육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또기증 내역을 영천 역사로 기록하고 보존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물 기증 관련 사항은 전화(☎054-330-6752) 또는 이메일(leezi@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장지수 기자

# 정한석 道의원, 대표발의 ‘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사진)이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예산의 각 부분 또는 정책 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이다.

정 의원은 “이번 발의로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경북교육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금호읍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정화 활동

영천시 금호읍 자연보호협의회(회장 문숙자)는 23일 금창교 인근 금호 제방길 일원을 중심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활동은 금호읍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과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15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강변에 방치된 폐기물 집중 수거와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소각 예방 홍보로 이어졌다.

# 영천 태권도 강보라·미르 자매 국제대회 나란히 금메달

강보라(여자일반부 -49kg), 강미르(여자일반부 -46kg)

영천시청 태권도단(감독 명재진)의 강보라·강미르 자매가 지난 13일·14일 양일간 이스라엘 람라에서 개최된 '2022 이스라엘오픈 국제태권도대회(G-2)'에 출전해 두 선수가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다.

강보라 선수는 여자일반부 -49kg 결승에서 독일의 Kisskalt Supharada 선수를, 강미르 선수는 여자일반부 -46kg 결승에서 이스라엘의 Bayech Rivka 선수를 꺾으며 1위를 거머쥐었다.

이로서 두 선수는 지난 6월 춘천에서 열린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오픈국제태권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2024년 파



리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랭킹포인트를 획득해 올림픽 출전에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 두 선수는 2021년 말 열린 2022년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획득한데 이어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 입상하여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영천여중 ‘블루걸스’ 댄스경연 금상

영천여자중학교(교장 김시용) 댄스팀 ‘블루걸스’는 지난 20일 부산여자대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제8회 전국여중고생 댄스경연대회’에 참가해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K-POP, K-댄스 등 한류가 세계인의 문화 속에 스며들고 청소년들이 즐기며 학생 개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여자대학교 다촌문화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답** 타인의 토지 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 부합의 원리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타인의 토지인 줄 알면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상에 유실수를 식재한 경우이므로, 위 감나무와 호두나무는 토지의 부합 원리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그 밭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다만, 농작물(벼, 보리, 양파, 고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경우에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경작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심은 나무들이 타인의 토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귀하는 비록 그 나무들의 과실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그 타인이 나무나 그 나무의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는 귀하가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청구해 볼 여지는 남는다.

민법 제256조 부합의 원리는 타인의 토지 상에 권원 없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전세권, 지상권 등을 설정함으로써 자기의 정당한 권원을 바탕으로 하여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위 부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수목의 소유권은 수목을 심은 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율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남의 땅에 허락없이 유실수(나무)를 심었다면?

자동적으로 유실수의 주인은 땅 주인의 소유가 된다. 다만, 해당 유실수에 대해 땅 주인이 수확을 한다면?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는 남는다.

**문**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밭 위에 주인도 알 수 없고 오랫동안 묵혀놓은 밭이 있어 아까운 생각이 들어, 가계에 보탬이라도 될까하여 감나무 100그루와 호두나무 50그루를 심어 금년부터 수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살고 있던 그 밭의 소유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감나무와 호두나무는 법적으로 자기 것이 되니 감과 호두를 수확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과연 맞는지요?

세무



윤영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불이익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매입세액의 불공제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월에 물품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를 한다면 적어도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넘겨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가산세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한다.

창업을 준비하면 챙길 것이 많겠지만 사업자등록을 소홀히 하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발생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 늦게하면 불이익?

사업장 개업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고해야 늦게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1% 추가 부담  
신규 사업장은 사업개시 이전에 등록해도 무방

직장생활을 마치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있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기한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본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

[사설]

과하면 부족한만 못하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25년 전 영천의 구석지고 버려진 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다. K토건이 거위인 줄 알았다. 그로부터 22년 후 이 땅이 대장동으로 불리는 줄 알았다. 모두 허상인 줄 아무도 몰랐다. 25년만에 다시 중단된 어느 구획정리사업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후미진 산기슭 임야 248,248㎡(7만5천평)에 1997년 K토건이 이곳에 그림을 그리다 9년만에 붓을 꺾었다. 부도로 법원이 설거지에나섰고, 유치권 30여억원에 지역 촌로들의 부푼 기대는 물거품으로 세월만 남아왔다.

22년동안 왜? 아무도 이곳 대장동을 몰랐을까? 아파트가 남아돌고 인구는 줄어들면서 지역 주택보급율은 높아만 갔다. 돈이 될만했다면 건설 대기업들이 그냥두지 않았을 것이다. 큰 그들에게 30억원은 돈이 아닐진데도 22년동안 아무도 달려들지 않은 이유는 그곳이 대장동이 아닌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행운인가 싶게 지난 2019년 한 새내기 건설사가 깃발을 꽂았다. 25년이 지난 오늘에야 어렵פות이 안갯속에서 그 촛점을 발견했다. 과하면 부족한만 못하다는 작은 밤풀떼기 하나를 건진 것이다. 너무 잘하려 하지말고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기 분수를 알고, 맡은 일, 맡은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숨 쉬고 있는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과한 욕심이 스스로를 집어삼켜 버렸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결과다.

이 구획정리사업의 작금 과행은 고의 아니면 무능에서 비롯됐다. 먼저 고의쪽에 생각이 멈췄다. 바로 그놈이다. 개도 몰고가지 않는 바로...개미 촌로들의 땅을 담보로 사업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80억원을 대출 받았다. 처음부터 내 돈 없이 빌리고 빌려서 똥돌 빼다 아랫 돌 채워 넣는 연속이다. 그러니 이팔공으로는 사업을 완성시킬 엄두가 나지 않았고 이팔공으로 아랫 돌 막는데도 힘겨웠다. 처음부터 그놈의 흐름은 그랬다.

그놈은 길도 잘못 들었다. 대출금 이팔공이 가야할 첫 도착지는 그놈을 관리해 줄 신탁회사다 그런데 주인도 나그네도 아닌 썩 끼워넣은 멧모르는 제3의 차주(돈을 빌리는 당사자)의 호주머니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몰라야 한다. 왼쪽 호주머니로 들어간 그놈이 오른쪽 호주머니에서 공중으로 날아갔다. 순식간에 날아간 크기가 전체 그놈의 40%인 108억(85억3천)이다. 여기에서는 교묘한 찰나의 시간차 공격수법이 쓰였다. 같은 시각 그놈의 60%인 172억원은 원래 제자리인 신탁계좌에 들어가 뒤늦게 보호를 받기시작한다. 버스 지나간 다음이다. 여기서 나몰라 관리가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했다. 바로 개미 지주들의 대표 도장이다. "나는 잘 몰라! 찍어라해서 찍고, 그냥 봉사하고 있어!"가 메아리쳤다. 그래도 매월 그놈 오백은 오른쪽 주머니속으로 들어왔다. 무능을 담보잡힌 결과물이다.

이같은 시간차 그놈의 흐름은 이미 짜고친 고스톱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공모 성격이 짙은 치밀하고도 허술한 사전 계획이다. 그놈을 빌려주는 조폐공사와 관리청(신탁사) 그리고 제3의 차주가 모를 수는 없다. 태어난지 다섯살짜리 새내기 건설사 혼자서는 불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협력관계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그 댓가가 그놈인지 모르지만...모든것은 시간이 해결하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이같은 기술은 새내기 건설사 몸에서도 여기저기 부스럼이 돋았다. 인적 구성원이다. 실패하고 뒤로 물러나야 할 주체가 여기저기 분신술을 썼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매각했는데 실상 알고보면 자신에게 매각한 격이니 자신만 아는 일이다. 흑자는 알고 있어도 손해볼 일이 없기에 모른척 할 수 있다. 그 사이 모든 일들은 순조롭게 착착 진행된다. 알고도 모른척 모르고도 아는척이다. 종점은 개미들의 수난 시대만 남는다.

20여년간 내 그놈 털어 자원봉사했다는 개미 촌로들의 대표를 알고보니 여든다섯에 매월 그놈 오백은 꼬박꼬박 수령됐다 한때. 그놈 이팔공의 시간차 공격 속에서도 나 몰라는 계속 진행형이다. 어엿한 자랑스런 0-1000 수상자다.

이 모두가 과유불급(過猶不及) 때문이다. 말리는 시어미도 때리는 서방도 거드는 관계자도 모두 그놈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다. 시민들과 지역 촌로 등 모두 잘 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제 시간을 멈춰야한다. 안타까운 1인만 목숨을 잃었다." 지역 촌로의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자를 일에 자칫 손목 자르게 될것이다"는 경고일 수 있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 ㈜중앙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할 말을 하는 영천신문’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구독료 정론(正論)·정도(正道)의 한길을 곳곳이 걸어가겠습니다 ▶구독료: 월 5,000원 / 년 60,000원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주)영천신문 ▶구독제보: TEL 332-2400 FAX 335-6600

지난 5월 28일 확장 이전(개업)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넓은 실내  
깨끗한 주방  
아늑한 조경

# 한그릇의 만족

자연과 함께 식사 후 야간 강변 산책도 가능한 아늑한 국밥집  
"최고의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단포 구보길 43-6 (054) 333-4710 한그릇의만족 대표 탁기만



## 영천현대서비스

현대자동차 삼천리서비스를 영천 현대서비스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고객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을 잊지 않고 새로운 각오로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현대서비스 대표 류시홍

Since 1983

대·소형 자동차 종합검사  
(대구 및 타지역 차량도 검사 가능)

현대자동차  
A/S센터



### 영업시간안내

영업시간/입출고가능시간  
09:00 ~ 18:00  
토요일  
09:00 ~ 16:00  
공휴일 휴무

TEL. 054) 337-3005~7 FAX. 054) 337-3004 / 010-5210-3002 위치: 금호읍 신월리 경축사로 뒤

## 삼가 감사인사 드립니다.

바쁘신 어려운 와중에 지난 15일 저희 모친(故 최영조) 장례식에 조문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과 정성이 담긴 기도 그리고 위로해 주신 덕분에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한 분 한 분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지면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 대신합니다.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신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댁내 대·소사에도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2. 8. 24

아들 탁기만·제학, 며느리 박정희·하이남 배상

